



세계관의 판단 기준

김종철

1. 소극적 기준

“바른 세계관이기 위해서는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들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 정합적인 구조이어야 하고,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에 부합(대응)해야 하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쉐퍼는 어떠한 이론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첫째, 그 이론의 내적인 정합성이 있어야하고, 즉 논리 모순이 없어야 하고, 둘째 우리의 내적, 외적인 경험과 부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계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관의 판단 기준〉

이론	정합	
	부합	외부세계
		내부세계
실천		

(1) 세계관 자체가 정합적인 구조이어야 한다.

하나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들 사이에 내부적인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전제presupposition이었던 ‘자연주의’나 모더니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장되던 ‘논리 실증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의적이고 상대적인 진리관’은 내부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이론 내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명제란 종합명제(감각 경험에 의해 그 명제의 참, 거짓이 드러나는 명제)와 분석명제(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명제의 참, 거짓이 드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러니는 명제) 두 가지 뿐이라고 하여, 신학적, 형이상학적 명제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의미 있는 명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두 기준 역시 분석명제도 종합명제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진보는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모더니즘의 전체인 자연주의(초자연적인 실재나 사건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상)에 의할 때 논리적으로 과학의 기초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식론적으로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우리가 인식한 대로 존재한다고 여길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적인 세계관 역시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절대, 보편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폭력적이다”라는 주장 자체가 보편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관 판단 기준으로 정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세계관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치밀한 하나의 사상 체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함께 우리는 다른 기준들도 필요합니다.

(2)외적, 내적인 실재와 세계관이 부합해야 한다.

쉐퍼는 로마서 1장 18-20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억눌렀는데(18절), 하나는 자신의 내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19절)이고 하나는 외부세계를 통해 보여주신 진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른 세계관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 외적인 실재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볼 때, 인간의 이성이 자충족적이고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모더니즘의 주장은 수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특히 1, 2차 대전으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간 신문에서 그 사실을 매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는 모더니즘의 입장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즉 창조자를 섬기던, 피조물을 섬기던 누구를 섬겨야할 존재이지 아무도 안 섬길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 내부에서 말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유한성으로 보는 모더니즘은 인간이 더 진화해서 더 똑똑해지고(과학 발전) 힘이 세지면(기술 발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라지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전 세계 인구 수의 5배나 되는 식량을 산출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유한성이라는 모더니즘의 주장은 외부세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실재에 대한 구성주의, 즉 실재는 인간이 구성하는 것이다라는 주장 역시 외부 세계 내지 내부 세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5색깔이라고 하는 문화와 7색깔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가지 색 뿐이라고 하는 문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리와 승냥이를 구분하지 않는 언어권은 있을 수 있으나 코끼리와 개를 구별하지 않는 문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편성의 부정과 불가공약성이 난무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일 수 없습니다.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폭력을 종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한 소수 민족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을 보면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인 도덕적 상대주의 역시 우리가 대면하는 세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내면의 실재와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¹⁾

(3)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들에 기초해서 삶을 일관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계관으로부터 일정한 신념을 빌려 올 수밖에 없는지도 세계관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쉐퍼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끄는 논리적 결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의 논리적 결론을 수미일관되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유명한 예는 음악가 존 케이지입니다. 존 케이지는 이 세상이란 본질적으로 우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음악에도 반영하여 동전을 수천 번 던져서 작곡을 하거나,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지휘 기계를 만들어 연주자들이 그 기계를 보고 연주하여 아주 우연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존 케이지는 음악 이외에도 버섯에도 굉장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 기자가 버섯을 채취할 때도 음악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존 케이지는 그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버섯의 경우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관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²⁾

도스뉘예프스키 역시 그의 책 <까라마조프씨네 형제들>에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는 삶을 그대로 일관되게 살 수 없다는 점을 까라마조프 형제 중 둘째인 무신론자 이반 까라마조프와 그의 하인 스메르짜코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반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으나, 사실 그 말이 함의하는 바(논리적 귀결)를 철저히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반으로부터 그 사상을 전수 받은 하인인 스메르짜코프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반의 아버지인 표도르 빠블로비치 까라마조프를 살해하자 이반은 자신이 주장한 사상의 논리적 귀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스메르짜코프 역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작은 이야기들의 불가공약성을 주장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일관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철저히 불가공약성을 인정해 보십시오. 쉐퍼의 말대로 우리는 아무도 물 한 잔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론적 정합성, 외부, 내부 세계에의 부합성, 실천 가능성을 들었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그릇된 세계관을 걸러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적극적 기준

“바른 세계관 형성에는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인간이 지

닌 하나님의 형상, 특히 지성intellect과 의지will가 왜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 인지기능 cognitive function의 왜곡에 대해서, 성경은 타락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futile,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darkened, 우둔해지고fool,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롬1:21-23).

플랜팅가는 이것을 죄의 인지적 효과noetic effects of sin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념이 죄로 말미암아 참되게 형성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예로 들자면, 칼빈과 로마서1:20에서 나타난 바울의 전통에 따라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신mind가 있다는 신념이나 물리적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신념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이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³⁾(로마서 1:18에서 말하듯이, 그런 신념이 생겨도 그것을 일부러 억누른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나 세상에 관한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는 참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지만, 세상이나 자연에 관한 신념 중 중요한 것들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논리적 관련이 있는)중요한 신념들의 합이라고 정의할 경우 참된 세계관의 형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도 그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종교지도자들의 예를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할 정도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그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신념을 낳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 E. Moore라는 철학자는 처음에는 전제를 인정하고 추론의 방식도 인정하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전제를 버리고 추론의 타당성을 의심한다고 하면서 신념은 심리적인 것, 의지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하였습니다(Moore Shift)⁴⁾.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당신은 살아있다고 설득을 시켜도 도무지 그는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는 고심한 끝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가 돼서 손가락은 바늘로 찌르면 물이 나온 다죠?” 그 환자는 “물론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는 쾌재를 부르며, 바늘로 환자의 손을 찔렀습니다. 당연히 피가 줄줄 나왔겠지요. 그러자 이 환자는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죽은 사람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아니라 물이 나온다고 믿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군요?”⁵⁾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참된 신념을 형성 할 수도 없고, 올바른 정보를 받고서도 바른 신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우리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과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참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요한복음 14:26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 1) “다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그건 내 자리야, 내가 먼저 왔잖아!”오렌지 좀 쥐, 저번에는 내가 줬잖아”이것 좀 해! 약속했잖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모종의 행동 기준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상대방도 ‘그만 기준은 개한테나 쥐’라고 말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행동은 그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 경우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변명합니다. [먼저 자리를 맡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거나, 지난번 약속했던 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투는 양자 모두 함께 인정하는 모종의 법 내지는 공정한 게임을 위한 규칙...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Lewis, Mere Christianity, Macmillan p17)
- 2) 폴 존슨이라는 카톨릭 저널리스트 역시 쉐퍼와 비슷하게 <지식인들>이라는 책에서 소위 지식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세계관과 상이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밝히고 있다.
- 3) Alvin Plantinga, Warranted Christian Belief(Oxford, 2000), pp206-216
- 4)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①세계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은 존재한다②세계에는 시작이 있다③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는 논증이 있을 경우, 처음에는 ①②를 믿고, 추론의 방식도 동일한 사람이 논증을 통해 죽기 보다 인정하기 싫은 ③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논증을 재구성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신념을 버린다. 즉①세계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②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따라서 세상의 시작은 없다. Nash, Faith and Reason(Zondervan, 1988), pp112-113
- 5) Wim Rietkerk, If only I Believe(Solway, 1997), p19